

정동의 기록화*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Affects in and of Archives : Focused on 4.16 Memory Storage

이경래(Lee, Kyong Rae)**

1. 들어가는 글
2.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
 - 1) 정동이론과 기록(학)
 - 2) 기록의 ‘정동적 가치’
3. 정동 기록화의 실증사례분석: ‘4.16 기억저장소’
 - 1) 재난의 정동
 - 2) 사회적 정동의 기록 공간으로서 ‘4.16 기억저장소’
4. 나오는 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0441).

**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 강사.

■ 투고일: 2022년 09월 29일 ■ 최초심사일: 2022년 10월 11일 ■ 최종확정일: 2022년 10월 21일.

■ 기록학연구 74, 5-43, 2022, <https://doi.org/10.20923/kjas.2022.74.005>

〈초록〉

본 연구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기록은 증거 가치, 정보 가치, 그리고 실물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서구 인문사회학 전반에서의 '정동적 전환(affective turn)'은 기록이 가지는 권위 밖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정동 가치'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불행히도 서구에서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던 반면 국내 기록학계 내 기록에 대한 정동적 논의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먼저 정동의 이론적 논의를 살핀다. 이어서 정동의 기록화를 보여줄 국내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재난 시대의 고통과 슬픔, 애도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정동의 저장소로서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관리 사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사회적 정동의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드러냄과 동시에 극적 계기를 제공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의 기록활동으로서 '4.16 기억저장소'를 동시대 트라우마적 사건의 생존자들과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기록한 정동 기록의 대표 사례로 보고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본 연구는 '4.16 기억저장소'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기록관리 관행과는 다른 정동 기록화의 차별성이 수집에서부터 평가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주제어 : 정동, 애도, 재난 아카이브, 4.16 기억저장소, 정동적 전환, 공감, 정동적 가치, 아카이브 신체, 감성의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윤리, 감정적 정의, 노란 리본, 포스트잇, 기억교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ffective value' of records. Traditionally, records have been evaluated as having evidence value, information value, and artificial value. However, the 'affective tur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began in the 1990s, calls for

discussion on the affective value of records. The overseas archive academia is in full swing discussing the emotional value of records after the 'affective turn'. However, there is no emotional discussion on records in the domestic archive academia. This study first conducts theoretical discussions to overcome these domestic limitations and explore the emotional value of archives in earnest. Follow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a specific case will be dealt with next. As a representative storage of affect, which records the pain, sadness, and condolences of the domestic disaster er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cord management case of the 4.16 Memory Storage. The Ferry Sewol disaster, which provided a dramatic opportunity to witness the unexpected ripple effect of affect in Korea, and the 4.16 Memory Storage as a recording activity,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ffective recording of the pain and sadness of survivors of the trauma incident. It will capture the differentiation of affect record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cord management practice, and demonstrate empirically how this differentiation is implemented from collection to evaluation and service through the '4.16 Memory Storage'.

Keywords : affects, mourning, disaster archives, 4.16 Memory Storage, affective turn, affective value, sympathy, archival body, archives of feelings, ethics for archivists, emotional justice, yellow ribbon, post-it, 4.16 memory classroom

1.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록은 증거 가치, 정보 가치, 그리고 실물 가치 (artifactual value)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

후 시작된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의 ‘정동적 전환(affective turn)’은 기록이 가지는 실물 가치에 더해 ‘정동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해왔다. 기록학자 길리랜드와 카스웰(Gilliland & Caswell, 2016, 55)은 정동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든 종류의 감정을 포괄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기록을 “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해 행해지고 조작되는 사적·공적 정동의 원천”으로 간주했다. 이들의 논의는 기록학계에서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미 서구 기록학계는 인문사회 학계 전반의 ‘정동적 전환’ 이후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 기록학계에서 상당수 연구자들이 이미 문화연구, 젠더 연구, 원주민 연구, 후기 식민주의 연구, 인류학, 심리학 등의 학술 분야에서 논의되는 정동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가령, 김사라(Kim, 2013)는 공공 아카이브에 대별되는 개인 디지털 아카이브의 감성적 측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그는 기록관리가 단순히 기록을 폴더에 넣고 미래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사회적·심리적 과정을 포괄하는 인간의 정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김사라는 개인적 기록이 지니는 지속적 가치 중 하나로 정서적·감성적 가치(emotional/sentimental value)를 언급하면서, 개인 기록은 무엇보다도 행복, 성취감 등 개인의 감성과 기억을 떠올려주고 보존해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동성애 아카이브에 있어 친밀감(intimacy)을 다룬 사이펄의 연구(Cifor, 2015)를 비롯해서 트라우마적 사건의 생존자들의 일상에서 아카이브의 영향력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구조 아래 갇혀 있던 사회적 의식 내면을 읽으려는 정동의 기록적 가치가 분명하게 언급된다(Caswell 2014a; Gilliland 2014; Harris 2001, 2014).

상대적으로, 국내 기록학계 내 기록에 대한 정동의 가치 논의는 저조한 실정이다. 가령, 국내 기록학계에서는 동시대 사회사적 사건의 기록

화를 다룬 연구에서, 참사 유가족의 슬픔, 분노, 애도 등 ‘정동’의 기록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이경래·이광석, 2017)가 있는 정도이다. 서구 기록학계의 경우에 정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동 관련 연구들이 진척되어왔지만, 아직까지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가 국내 기록학계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나 함의에 대한 진지한 물음은 상당히 공백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달리, 국내 문화연구 학계에서는 나름 정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례로, 문화이론계간지 『문화과학』(2016, 여름)은 ‘정동’을 기획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여기서 비판적 문화연구자들이 언급하는 ‘정동’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인지자본주의로의 이동 등 더욱 복잡해진 포스트 근대 권력의 작동방식을 재고하고 현실 사회와 문화 정세를 읽는 새로운 개념이자 분석틀로 제시되고 있다(김성일, 2016). 정동을 사랑·열정·분노·슬픔·애도 등 복합적 공통 정서 상태로 읽는 이 문화연구자들은 그것이 ‘전(前)사회적’이고 ‘전(前)이데올로기적’이고 ‘전(前)담론적’인 무엇도 이론적 가치가 없는 변덕스러운 잔여물도 아니라고 보면서, 사회적 연대나 정치적 결사를 이끌 수 있는 비가시적인 동력으로 간주하였다(Athanasiou, Hantzaroula & Yannakopoulous, 2008, 8; 박현선, 2016, 64 재인용).

본 연구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의 잠재태로서 정동 개념에 기초해, 국내 기록학계에서 ‘사회적 감수성’을 담지하고 있는 비실물의 정동 기록이 지닌 힘을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는 내적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궁극에 이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정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정동이론과 기록학의 교차점에서 있는 주요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동 이론이 구체적으로 기록학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을 살필 것이다. 이어서 ‘감성의 아카이브(An Archive of Feelings)’ 개념을 통해 기록이 가지는 정서적·정동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던 앤

스벳코비치(Ann Cvetkovich)를 중심으로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살필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정동 기록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정치적 파국 상황에서 일어났던 ‘4.16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슬픔, 애도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정동의 기록관인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관리 사례를 통해 기록의 정동적 가치를 살펴본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정동의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와 이의 극적 계기를 제공했던 세월호 참사와 이의 기록활동으로서 ‘4.16 기억저장소’는 트라우마적 사건의 생존자들과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사회적으로 기록한 정동 기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일반적인 실물 기록관리 관행과는 다른 정동 기록화의 차별성이 수집에서부터 평가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4.16 기억저장소’를 통해 실증적으로 드러내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으로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사례 분석, 그리고 전문가 면담을 적용한다. 먼저 문헌연구는 스벳코비치의 ‘감성의 아카이브’를 비롯해서 해외 『아카이브 과학Archival Science』의 정동 특집호에 실린 다양한 논의들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실증적 사례 분석과 전문가 면담은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4.16 기억저장소’의 웹사이트 분석과 더불어 기록관리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적 정동의 기록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했다.

1.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정동적 전환(affective turn)’(Clough & Halley, 2007)이 1990년대 이후 명명된 이래, 정동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의 핵심이 되었다. 이제 정동(affect), 정서(emotion), 감성(feeling)은 비판적 학문 연구의 강력한

대상이자 실천 개념으로 부상했다.¹⁾ 정동이론은 인문 이론적 프레임으로서 기록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실무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록학에서 ‘정동적 전환’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전통적 아카이브 지향에서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지향으로, 더 나아가 고통과 슬픔에 대한 공감, 애도, 그리고 성찰까지도 포괄하는 아카이브 구축으로의 전환을 핵심 테제로 삼는다. 이 장에서는 먼저 정동이론과 기록(학)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로부터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접근한다. ‘정동의 저장소’로서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 글에서는 정동의 사회사적인 구현체로 4.16 기억저장소를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정동이론과 기록(학)

서양 철학에서 정서 또는 정동은 오랫동안 억압과 회피 심지어 증오의 대상이었다(정정훈, 2019). 감정과 정서처럼, 정동은 통제 불능의 비이성적이고 나약하고 여성적이지만, 잠재적으로 폭력적이고 말썽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연관되어 왔다(Halilovich, 2016, 77). 부정적인 의미로 점철된 정동의 역사적 기원은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이성, logos)와 파토스(정념, pathos)의 대립 국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를 ‘욕망, 분노, 공포, 증오, 동경, 경쟁심, 연민 및 쾌락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감정’으로 정의하면서 로고스나 이성에 대립하는 가변적이고 쉽게 흩어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감정적이

1) 정동, 정서 및 감성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는 논의들이 있다. 쇼즈(Shouse)는 정동, 정서, 감성이 일상적으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러한 용어들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감성(feeling)은 개인적(personal)이고 전기적(biographical)이며, 정서(emotion)은 사회적(social)이고, 정동은 전개인적(prepersonal)인 것”으로 차별성을 강조한다(Shouse, 2005). 비록 쇼즈의 논의를 존중하지만, 본 논문의 맥락에서 필자는 ‘정동’을 주관적이고 정서적·감성적인 반응, 인식 및 경험을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로 사용한다.

고 비(非)이성적인 것으로 처리되어 온 파토스는 철학자 데카르트에 이르면 속물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폄하되었다. 이성과 감정, 정신과 몸, 주체와 타자를 둘러싼 이원론적 담론 속에서 감정과 정서는 억압되어 부차화되거나 주변화되고 사변화되었다(박현선, 2016, 64).

오늘날 정동(affect) 논의는 회피되거나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 활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것의 역능을 함께 사유해야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정신의 표상 이전에 이미 신체와 감각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힘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탐구로서 정동의 정치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즉 정동 개념은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시대 이후에 좀 더 내밀하게 인간 의식 내부에 작동하는 포스트모던 권력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마수미, 2011, 8). 오늘날 권력은 이데올로기의 자장을 넘어서 작동하며, 신흥 권력의 속성을 읽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넘어서는 정치의 정념적 차원을 사고해야 하는데, 그 차원이 바로 '정동'인 것이다(정정훈, 2017, 404). 현대인의 불안, 공포 등 온갖 종류의 개별적이고 집단적 감정 구조가 개인, 공동체, 사회를, 아니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을 설명하고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통치와 정치를 해석하는 중요한 잣대로 바로 정동의 개념이 적절히 쓰이고 있다.

정동 연구의 본격적인 출현은 자본주의와 지식권력, 문화적인 것들을 횡단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시점과 중첩된다. 다시 말해, 비판 철학의 전통에서 반주체적이고 반데카르트적인 전통의 철학적 접근이 대두하게 되면서 정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게 된다(박현선, 2016, 62). 정동적 전환은 단지 정동, 정서, 감성을 학문적인 연구의 합당한 대상으로 다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이전까지 주변화되어 온 개인적이고 주관적·감정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비공식적 차원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배제되어 온 이들의 삶과 공간에 주목하면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삶과 장소들을 가시화·가청화 한다(이종찬, 2016, 308). 또한 지극히 개인적·주관적 감정조차 사회적인 것으로 연결되고, 이 간(間)주관적 감정들은 이제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복합적 관계망들의 어떤 징조나 정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동 이론가들이 밝히고 있듯이, '정동'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된 합의는 없다. 정동 개념은 어떤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저마다 특유의 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일관된 검토가 쉽지 않다. 많은 이론가들이 저마다 정동에 대해 말하면서 늘 다른 해석과 방식으로 정동을 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다. 하지만 정동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의 핵심에서, 정동은 인간 신체(개인적 또는 집단적)와 세계 사이에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관계를 만들어 내는 힘으로 이해된다(Cifor, 2016, 10). 한마디로 정동이론은 신체와 신체 사이의 '관계성(relationship)'에 주목하면서, 이성, 인지, 언어 그 너머로 학문 영역을 확장해 권력과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Sedgwick, 114; Cifor 2016, 10, 재인용).

정동을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시대 기록학계의 화두들, 즉 재현, 정체성, 집단기억, 공동체 등을 대부분 포괄해 다루고 있다(Cifor, 2016, 10). 일상적인 트라우마에 주목하면서 이를 자본주의적 삶의 대표적인 정동으로 간주한 스베코비치는, 특히 그의 책 마지막 장인 '레즈비언 감성의 아카이브(In the Archive of Lesbian Feelings)'에서 기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는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기록활동을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트라우마를 겪는 공동체의 정체성 및 집단기억의 형성에 있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Cvetkovich, 2003, 239-272). 정동이론의 또 다른 선두주자인 사라 아메드(Ahmed, 2004)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와 정치적 삶, 즉 공적 영역에 있어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했다. 특히 그의 연구는 정동이 무슨 일을 하는가, 즉 정동의 '수행성'에 주목한다. 이는 나중에 살펴볼 사회적 참사 생존자들의 고통에 대한 목격자로서 아키비스트 자신이 기록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윤리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준다. 이처럼 정동이론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록학에 새로운 접근과 담론 구성을 촉구하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학계에서 정동의 이론적 프레임을 접목해서 정동과 기록의 교차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한 계기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UCLA)에서 주최한 '정동과 아카이브에 대한 심포지엄'(Symposium on Affect and the Archive, 2014. 11)이 아닐까 한다. 이 심포지엄은 기록학 분야에서 거의 최초로 정동을 주목해 다룬 행사였으며, 기록학 영역에서 정동 연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분수령이 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들은 기록학 저널 『아카이브 과학Archival Science』의 기획 특집호²⁾에 실렸는데, 이에 실린 논문들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펠(Cifor, 2016)은 성 소수자들(LGBTQ), 페미니즘 및 인권 아카이브의 사례를 들면서 정동이론을 수용하는 것이 기록관리 분야에서 사회 정의의 원칙과 목표를 지원하면서 기록관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더 비판적이고 도전적으로 이해하고, 기록의 의미를 재개념화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동이론이 기록관리에 있어 과거에 부정과 억압을 만들어 낸 권력과 권력 남용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특히 앤 스베코비치, 사라 아메드, 그리고 로렌 벌랜드(Lauren Berlant)의 정동이론을 구체적으로 기록학에 접목해 보임으로써, 정동이론이 어떻게 기록관리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기

2) *Archival Science*, March 2016, Volume 16, Issue 1 주로 참고할 것.

여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³⁾

앤 길리랜드와 미셸 카스웰(Gilliland & Caswell, 2016)의 경우에는, 지금껏 기록관리 영역에서 증거에 대한 지배적인 법적이고 관료주의적 관점이 종종 또 다른 기록의 능력, 즉 동기를 유발하고 트라우마나 분노를 야기하는 능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공저자들은 두 개의 개념, ‘불가능한 아카이브의 상상력(impossible archival imaginaries)’과 ‘상상된 기록(imagined records)’을 제안한다. 즉 이들은 이 두 개념을 통해 부재하거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아카이브(와 이것의 콘텐츠)에 대해 개인적·집단지적 상상력의 역할이 명백하게 아카이브 이론과 실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들의 기록 개념은 존재뿐만 아니라 부재 속에서도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들은 두 개념을 통해 이전에 소홀히 다루어졌던 기록의 정서(동)적 능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지배적인 법적·관료적·역사적 증거 개념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카이브 과학』의 기획 특집호에는 정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이어, 실제 인간 삶에 있어서 기록이 가지는 정동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다룬 논문들을 신기도 했다. 해리츠 할리로비치(Halilovich, 2016)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대량학살 생존자의 상실과 슬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산산조각난 삶에 대해 이른바 ‘친밀한 아카이브(intimate archive)’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다룬다. 저자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기록으로 가득 찬 ‘친밀한 아카이브’가 생존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주요한 기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후기’ 대량학살 사회에서

3) 예를 들면, 사이펠은 벌랜드의 ‘잔인한 낙관주의’라는 정동적 개념을 기록관리에 대입한다. 벌랜드의 ‘잔인한 낙관주의’란 “우리가 애착심을 품는 욕망 환상의 대상이 실은 우리 자신의 안녕에 해가 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상황을 지칭한다”(박미선, 2015, 102). 사이펠은 벌랜드의 ‘잔인한 낙관주의’를 동시대 기록관리 환경에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기록관리의 데이터베이스와 민영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식별하고 기록학자와 아키비스트들이 사회정의를 위한 기록관행을 재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념적 도구로 봤다(Cifor, 2016, 23-27).

기억학살에 직면한 피해당사자 공동체의 사회와의 연결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도구가 된다고 분석했다. 일련의 민족지학적 연구를 통해 할리로비치는 생존자의 기록과 기억 보관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포착하고, 사회적 치유 및 화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록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재클린 윌슨과 프랭크 골딩(Wilson & Golding, 2016)의 경우에는, 과거의 고통을 부활시키는 기록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록의 정동적 가치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다.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를 직접 경험한 저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험한다. 성인이 된 후 기록관을 방문해서 자신들에 대한 기록을 대면했을 때 경험했던 정동적인 영향들, 특히 과거의 고통을 부활시키는 기록의 능력을 상세히 다루었다.

『아카이브 과학』 특집호와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동이론과 기록학의 접목이 다면적인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기록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수면 아래 있던 공동의 정서적 경험이 기록관리에서 표면화되는 과정과 함께, 그동안 주변화되고 소외된 개인 및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뜻한다. 아카이브가 지배 권력의 공간으로 간주되고 부정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포스트 근대주의의 비판에 직면해서, 정동 연구는 기록관리에 있어 권력의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생의 접근 프레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2) 기록의 ‘정동적 가치’

기록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기록학 영역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기록관리에 있어서 ‘평가’의 문제는 상징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무 영역에서도

아카이브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키비스트는 평가를 둘러싼 관련 기관의 제반 정책 및 기록생산자, 기록주체 및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자신의 주관과 관점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 행위는 어찌 보면 아키비스트들이 보존가치를 가진 기록을 선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존가치를 창출하는 권력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arris, 2002).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최근 논의는 이렇듯 특정 관점이 반영된 평가 방식과 관련해 새로운 논의를 촉발했다. 누가 평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평가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가치가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제고가 그것이다. 평가가치를 놓고 본다면,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로 대변되는 평가기준으로는 제대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기존 평가 관행에서 보면, 공동체 기록과 같이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은 부차적으로만 고려되고 무결성과 신뢰성은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기존 평가에서는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갖고 가치를 객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체성, 기억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기록 욕구를 담아내거나 충족시킬 수 없다(설문원·김영, 2016, 239).

실증주의 전통에서 보면, 기록은 증거, 신뢰성, 메타데이터 등 실증주의에 공명하는 단어들과 밀착되었고, 정동, 친밀감, 애정의 영역과 거리가 멀수록 가장 보편적이고 규범적이며 사실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사적인 것과 거리를 두고 정동적인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일반 기록으로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Halilovich, 2016, 78). 결과적으로 정동은 사적인 영역에서 포착되는 것으로 보고 기록관리라는 공공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슬픔, 상실, 불안, 분노, 애도, 외로움, 사랑으로 이어지는 정념의 목록은 기록관리 체제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당연히 쉽게 누락됐다.

정동의 기록을 소외하고 배제하는 기록평가 관행의 한계는 스벳코비치(Cvetkovich, 2003)의 ‘감성의 아카이브(An Archive of Feelings)’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기록관에서 실제 기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정동 이론가인 스벳코비치는 퀴어 공동체 아카이브를 사례로 들면서 자신의 논점을 설득력있게 펼친다. 즉 그는 퀴어의 정체성을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정보나 지식뿐만 아니라 ‘친밀감, 성, 사랑, 행동주의’ 등 퀴어의 삶과 관습에 가장 근본적인 정서를 기록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정서의 급진적 아카이브(radical archives of emotion)’를 제안하면서, 퀴어 공동체처럼 일상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공동체의 경우에 정서적 경험을 담은 기록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Cvetkovich, 241).

기록이 가지는 정동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본격화한 스벳코비치는 기록을 포함한 “문화적 텍스트”를 “감성과 정서의 저장소”로 봤다(Cvetkovich, 7). 그는 문화적 텍스트의 내용(content)에는 암호화된 정동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Cifor, 2016, 14). 더구나 그는 기록 매체(objects)에도 정동이 깃들여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트라우마의 기억이 서사(narrative)뿐만 아니라 물질적 인공물(material artifacts)에도 박혀있고”, 사진에서 박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인공물은 트라우마와의 (직접적) 관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당대의 감정과 정서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Cvetkovich, 7-8; Cifor, 14 재인용). 스벳코비치의 관점은 기록의 선별 및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치 매트릭스의 하나로서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에서 소외되어왔던, ‘정동적 가치(affective value)’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동안 제도화된 평가 프레임은 기록관리에서 지배적인 권력의 가치와 이익을 굳건히 유지한 반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험, 가치 및 욕구를 배제해 왔다(Dunbar 2006, 112)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사한 맥락에서

앤드류 플린(Flinn, 15)은 사회 정의의 추구 속에서 기록평가의 프레임 을 새롭게 재고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펠 또한 기록 관리 영역에서 사회 정의를 표면화하면서 권력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동에 대한 인정을 주장했다. 그는 기록을 ‘정동적 오브제(affective objects)’로 간주하는 스베코비치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평가이론과 실무를 재고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평가가치로 기록의 정동적 가치를 강조했다(Cifor, 13). 구체적으로, 사이펠은 전통적인 기록의 평가 체제가 전적으로 역사적·연구적 가치에 매몰되어 정동적 경험을 평가하지 못하고, 정동의 원천으로서 기록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정동을 담은 기록의 의식적·무의식적 폐기 가능성을 높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평가 기준으로서 정동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전에 수집하는 기록의 대상과 목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경을 요구하며, 기록의 폐기로 인해 정동적 경험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 폭력이나 권력의 공권력 동원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험을 다룰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공동체나 트라우마적 사건으로부터 생존자들의 기록을 다룰 때 이들 공동체의 정동적 경험을 평가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Cifor, 2016).

그렇다면 평가의 준거로 강조된 ‘정동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정동적 가치가 기록관리 현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키비스트가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기록의 정동’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스베코비치는 아키비스트들이 기록을 평가할 때 기록생산자들의 정동을 신중히 고려함으로써 발견되는 기록의 잠재적 가치를 언급하기도 했다(Cvetkovich, 2003; Cifor, 2016, 17 재인용). 카스웰과 사이펠은 아키비스트가 기록생산자뿐만 아니라 기록주체(record subject), 이용자 및 이의 확대된 사회

공동체와의 감정적 유대와 공감을 통해 평가를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Caswell & Cifor, 2016). 이들의 논의는 아키비스트가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정동을 감정적 유대와 공감을 통해 평가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아키비스트가 지금껏 평가 결정에서 추구해오던 법적·도덕적 의무에 더해 타인의 감성에 관여할 정서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Caswell & Cifor, 2016).

아키비스트가 기록생산자의 정동을 고려한다는 것은 기록생산자의 관점에서 아키비스트가 평가 결정을 재고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정동의 관점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생산자가 자신의 기록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묻고, 기술(description)의 경우에도 아키비스트가 기록생산자라면 기록이 어떻게 기술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더 재고하기를 요청한다. 보존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아키비스트는 기록생산자가 기록의 보존 연한을 어느 정도 원하는지 등을 감안해서 평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Caswell & Cifor, 2016, 33-36).

그렇다면 아키비스트가 기록주체의 정동을 평가 실무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기록관리 영역에서 기록주체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동안 기록생산자의 법·제도적 권리에 전적으로 집중해온 기록관리 관행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기록생산자 중심에서 벗어나 그동안 기록관리 체계에서 소외되어온 기록주체의 감성과 정서를 고려하고 이를 평가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아카이브에서 기록주체의 정동을 표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키비스트가 기록주체와 깊은 감정적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새로운 가능성과 국면을 열어준다. 특히 아키비스트가 기록주체의 정동을 고려할 때 기록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역사를 포착하려는 아키비스트의 기록 책무와 기록주체의 프라이버시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발한다(Caswell &

Cifor, 36-37).

아키비스트가 이용자의 정동을 고려한다는 것은 기록과의 상호작용이 이용자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키비스트가 면밀히 살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더 이상 이용자들을 기록의 정동과 무관한 주체로 간주할 수 없다. 아키비스트는 이용자들이 기록을 통해 획득하는 지적 경험뿐만 아니라 이들의 감정적 경험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이를테면, 이용자들이 기록을 통해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적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이용자의 감정적이고 정동적 경험을 아키비스트는 평가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Caswell & Cifor, 37-38).

마지막으로, 아키비스트가 더 큰 공동체적 정동을 고려한다는 것은 기록의 직접적인 이용자는 아니지만 기록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 공동체의 정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Caswell & Cifor, 39-40). 이것은 아키비스트가 동시대 다중의 정동을 평가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아키비스트가 기록관의 장벽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확장하는 새로운 평가정책의 마련과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본 장에서는 다양한 공동체의 삶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록관리 영역에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정동적 가치를 인정할 것과 이러한 정동적 가치가 기록평가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동적 가치를 기록 실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기록평가자인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정동을 감정적 유대와 공감을 통해 평가 결정에 반영하는 데 있다.

3. 정동 기록화의 사례 분석: 4.16 기억저장소

앞서 기록의 정동적 전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이 장에서는 정동을 기록화하는 구체적 사례로 '4.16 기억저장소'를 탐색한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라는 사회적 재난에 직면하여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중 시민의 정동을 기록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4.16 기억저장소가 포착한 재난 시대의 정동이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4.16 기억저장소에서 어떠한 기록활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핀다.

1) 재난의 정동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했다. 2022년 4월에 8주기 추모식이 열렸던 목포신항에는 416 유가족과 생존자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빛바랜 노란 리본 속에 적혀있는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달리, 진상규명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 사회의 무기력에 다시 한번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자리였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한국 사회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해 5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대구지하철 화재 등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1964년부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까지 10인 이상이 사망한 대형 재난 사건은 무려 276건에 달한다(김미향, 2019. 11. 24).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우리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업계는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재난 사건들은 대개 처음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되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히거나 그날 현장의 기억이 훼손되거나 형식적 기억 활동만 전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재난의 흔적을 지우고 희생자들을 애도하지 않던 익숙한 패턴을 벗어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 사회사적 사건이다(정원옥, 2017, 62). 이러한 극적 변화의 기저에는 참사가 빚어낸 이른바 ‘재난 정동’의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있었다. 참사 당시 배가 침몰하는 모습과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을 전국 방송을 통해 생생히 목격한 시민들은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충격과 슬픔의 사회적 정동에 휩싸였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호 사고가 국가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과 실패 속에서 대형참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충격과 슬픔은 분노와 불신의 정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정정훈, 2014, 5).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정동의 목록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만들어냈다. 참사 직후 일군의 시민들이 팽목항과 안산 등지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슬픔을 위로했다면, 또 다른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달고 온라인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추모행동에 동참했다.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와 문화제에 참여하며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은 416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과 지지를 유지하며 사회 실천을 통한 변화를 모색했다. 시민들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는 적어도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서약의 행위, 따라서 약속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이어졌다(테리다, 115; 정원옥, 2014, 61 재인용). 한마디로 ‘애도의 정동’이 생존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흘러넘쳤다.

애도라는 정동은 “죽음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상실에 대한 남은 자들의 응답”을 뜻한다. 이는 “남은 자가 상실과 이별을 마주하며 고인을 떠나보내고 삶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유해정, 2018, 185). 이처럼 죽음과 상실을 전제로 하는 애도는 재난과 각별히 연결되어 있다. 재난

은 권력의 폭력성에 다치거나 죽임을 당한 이와 가까운 살아남은 자들과의 강제된 친밀성의 상실이기에 핵심 정동인 애도와 연결된다. 주디스 버틀러(2008)는 애도 행위를 좀 더 주체의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로 풀고 있는데, 즉 자신이 겪은 상실에 의해 자신이 어찌면 영원히 바뀔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때 애도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즉 애도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큰 변형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버틀러적 관점에서 애도는 개인적이고 심리적 차원에서의 상실과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진실에 충실하기 위해 이를 공동으로 기억하고 남겨진 이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실천 과정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난 시대의 애도는 단지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버틀러의 애도에 대한 해석처럼, 우리가 재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재난의 사건을 잊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라진 이들의 희생에 값하는 성찰과 적극적인 사회 개입과 실천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애도의 적극적 해석에서 보자면, 애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재난의 경험을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로 이끌려는 개입과 행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4.16 기억저장소는 사회적 참사가 촉발한 애도의 정동을 보존하고 있다. 이 기록공간은 버틀러식 애도 행위의 실천적 함의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억하고 기록하며 행동하라’는 이 기억 공간의 슬로건은 애도의 실천성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즉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꿈과 삶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시민의 노력을 ‘기억’하고, 참사 피해자들의 삶과 참사를 추모하는 ‘기록’을 수집·관리하고, 참사 이전과는 다른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사의 기억과 기록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동’한다. 참사의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분노, 상실과 슬픔에서 기인하는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애도의 정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 차원

에서 아래로부터 분연히 씌는 애도의 정동을 제기하고 있다.

2) 사회적 정동의 기록 공간으로서 ‘4.16 기억저장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애도 행위는 다각적으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참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시민들은 기억이 기록되지 않는 이상 진실에 닿을 수 없고, 기억과 기록이 가능할 때에만 진실이 드러날 수 있고, 진실이 드러날 때에만 합당한 재난 치유와 보상,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용서와 화해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다(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재난참사기억프로젝트팀, 2017, 11). 국민 대다수가 두 눈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혹은 직접 그 현장에서 참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한 그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권력에 의해 부정되는 상황, 즉 ‘기억학살(memoricide)’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들은 자율적인 기록활동을 수행했다. 관계 부처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록의 파기, 은폐, 조작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높아만 갔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던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강한 각성과 반성은 시민 직접행동주의로 이어졌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들의 직접적인 수집·보관으로 이어졌다. 영상팀, 사진팀, 작가팀, 학자팀 등이 포함된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는 안산과 진도에서 구술 채록 및 영상, 사진 등을 통한 기록화를 수행했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는 유가족과 생존자, 자원봉사자의 기록을 생산·수집했다. 기록학 대학원생들과 기록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세월호 참사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은 각 지역의 분향소에 모인 시민들의 추모기록을 수집했다(조민지·이은화·이영남, 2020, 273). 이들 세 단체는 마침내 2014년 8월 31일에 ‘4.16 기억저장소(이하 기억저장소)’로 통합되었고, 이들 단체에서

수집된 대부분의 기록들은 기억저장소로 옮겨져 보관되었다.

기억저장소에는 사회적 애도 작업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애도의 정치’가 깃들어 있다(박현선, 2020, 238). 애도의 작업으로서의 아카이빙 실천은 재난의 진실 규명을 위한 기록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 다중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추모 및 애도의 활동을 기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기억저장소에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목소리를 담은 구술에서부터 희생자들의 유품이나 사진, 영상, 추모객이 남긴 비망록에 이르기까지 재난이 남긴 애도의 흔적이 가장 많이 수집·보존되어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와 같은 애도의 장소인 기억저장소를 사회적 재난 시대 애도의 정서를 수집·보존하는 정동의 저장소로서 보고 이의 기록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곳에 시민 다중의 정동과 직접적으로 참가 피해자들의 정동을 어떻게 기록화하고 있는지, 동시에 기억저장소를 대표하는 공간기록인 ‘기억교실’이 가지는 정동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저장소에서 참가 피해자와 아키비스트 사이 맺는 ‘공감’의 정동에 대해서 관찰한다.

(1) 시민 ‘애도’의 기록화: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 메모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시민이 애도와 분노의 마음을 곱씹으며 가장 많이 되뇌었던 말은 “기억할게”, “잊지않을게”라는 약속이었다. 시민들은 서약의 행위로 노란 리본(그리고 노란 종이배)과 포스트잇에 자신의 맹세를 기록했다. 짧은 추모 글을 담고 있는 포스트잇 글과 노란 리본은 죽은 이가 느꼈을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재난 시대 다중 시민의 사회적 애도를 표하는 정동의 대표적 기록 매체이다. 노란 리본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인식 리본의 한 종류로, 다양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사용되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자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라인을 통해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는 유독 시민 다중의 애도를 품은 정동의 기록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란 리본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색깔과 도상(icon)이 되었다(정원옥, 2017, 62).

포스트잇 메모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당시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운영하던 세탁소 앞에 실종 학생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붙여진 것에서 시작되었다(정혜진, 2014. 4. 27; 정원옥, 2016, 162 재인용).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교실들과 합동분향소, 광화문 분향소 등에서도 포스트잇은 희생자들에 대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남기는 비망록 구실을 했다(정원옥, 2016, 162). 그 이후로도 포스트잇 메모글은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사건’과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에서도 사건 현장에 붙여지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분노, 공감, 추모와 애도의 시민 목소리와 사회적으로 기억하기의 아카이빙을 대변하는 상징적 기록물이 되었다(정원옥, 2016, 161-164; 박현선, 2020, 239 재인용). 기억저장소에 보존되어 있는 포스트잇 메모글은 사회 각계각층 시민들이 사회적 연대와 애도를 표했던 다짐의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아픔과 분노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적을 응원합니다” 등 낱장으로 쉽게 떨어지는 한 장의 포스트잇들이 모여서 겹쳐지고 뒤엉켜 거대한 다중의 애도를 대변하는 사회적 기록을 생산해냈다(박현선, 2020, 239).

현재 기억저장소에는 이전에 활동했던 ‘세월호참사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에서 수집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이 보관되어 있다. 전국의 시민분향소나 안산의 올림픽

기념관 임시합동분향소와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 분향소가 대표적인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의 출처들이다. 분향소의 경우에 이를 철거할 때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기록팀에 의해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이 수거되는 연유로 관련 출처를 포함한 이력 정보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유가족이나 가족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학교나 단체에서 추모활동 결과물로 보내온 경우에는 이력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키비스트의 ‘추정’에 기반해서 기술되는 경우가 많다.⁴⁾

기록 정리 작업에 있어서도,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이 정형화된 기록물의 형태가 아니거니와 기록물의 철, 건 개념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에 부딪히기 일쑤다. 노란 리본의 경우 수량이 방대해서, 하나하나 펴서 그 속에 담긴 글들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정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고민이 있다. 현재는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묶음으로 또는 적당한 수량을 증성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한편 포스트잇 메모 기록은 A4용지에 여러 장의 포스트잇을 붙여서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통적인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은 출처도 불명확하고 무결성, 이용가능성, 신뢰성 등 기록의 4대 속성도 대부분 획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민 다중의 애도를 담은 정동의 기록이자 애도의 기록물로서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을 수집·보관하고 있다. 이들 기록은 시민의 분노와 슬픔을 담은 정서적 애도의 기록이자 훗날 ‘기억할게’ ‘행동할게’로 표현된 시민 집합의 정치적 애도의 증거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범시민적으

4) 아키비스트 자신이 기록을 보다 보면 기록의 내용 속에 출처들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는 경우에 ‘추정’에 기반한다. 가령, 기억저장소에 유치원생들이 보내온 엽서에 ‘00유치원’이라는 인장이 한쪽에 찍혀있는 것을 보고 아키비스트가 그 출처를 인지하거나 추정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은화, 前 416기억저장소 기록관리팀장, 2021년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이직) 인터뷰 참고.

로 참사를 잊지 않고 향후 참사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록 참사 발생의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한 직접적 기록은 아니지만, 이들 정동의 기록은 재난에 대한 사회 연대의 감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재현하는 매개체이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담은 기록이 된다. 결국, 기억저장소가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의 보존을 통해 시민 정동의 역사적 저장소가 되고, 그로 인해 기록의 정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품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2) 참사 유가족의 '애도'의 기록화: 구술 증언록

재난 아카이브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한편으로, 그것은 무엇보다 권력과 구조가 은폐한 재난 참사의 진상을 기록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재난 아카이브는 피해자라는 명명 속에 '숫자'로만 남은 이들의 삶을, 우리처럼 울고 웃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복원해야 한다(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재난참사기억프로젝트팀, 2017, 11).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은 문자화된 기록이 남기지 못하는 행위나 사건 이면에 놓인 당대의 보다 심층적인 맥락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김명훈, 109). 문자화된 기록만으로 홀로코스트 같은 참사에 대한 설명을 해내기에 역부족이고 주류 역사적 내러티브(서사)가 피해당사자들의 기억과 얼마나 어긋나는지 실감하게 되면서,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이나 구술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참사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구술 증언은 단순히 진상규명을 위한 증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고통의 심연을 스스로 드러내 용기 내어 고인을 떠나보내고 일상 삶으로 복귀하기 위한 애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기억저장소가 시민 다중이 지니는 애도의 정동을 노란 리본과 포스트잇 기록화를 통해 포착했다면, 그 무엇보다 애도의 중심 주체인 참사

당사자 유가족의 정동은 구술작업을 통해 아카이빙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5주기를 맞아 2015년 6월부터 시작해서 근 5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2019)를 출간했다. 피해자 가족 구술 88권, 잠수사 구술 4권, 동거차도 주민 구술 3권, 유가족 활동 단체 구술 5권 등 총 100권으로 이루어진 구술 증언록은 구술자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구술자 별로 이별, 상실, 애도 등 고통에 대한 개별 증언으로 구성해 집대성되었다. 이 구술 증언록은 참사 피해자들의 구술을 그대로 전사함으로써 그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기록했다(4.16 기억저장소, 2019, 5-8).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유가족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의 진솔한 감성과 애도의 마음이 담겨있다. 구술증언록에는 무엇보다도 갑작스럽게 사별할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의 추억이 중요한 핵심 서사로 자리한다. 참사 이전에 한 가족의 평범한 하루 일과를 담아내고 아이들과의 추억을 재현하고 기록한다. 독자들은 증언록을 통해 아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성격이 어땠는지 등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단지 숫자로만 기억되는 희생자 중 한 명이 아닌, 한 아이의 개인적 삶을 고스란히 대면하게 된다. 부모들은 구술 증언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사라진 아이의 기억과 경험을 수집하여, 아이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이로 만들어낸다.

구술 증언록은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유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서사를 담고 있기도 하다. 재난 이후 진상규명 활동의 지지부진함과 정치적 공방, 세월호 참사 왜곡 보도, 유가족에 대한 모독 속에 고통스러운 유가족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또한 구술증언록은 구술자들의 참사 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비롯해, 그들 삶과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한다.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 고통, 절망, 좌절, 분노를 느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시민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면서 자신의 서사가 개인

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성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유가족의 희망과 경험을 담고 있다.

『그날을 말하다』는 구술자들의 기억과 목소리를 전면화하고 슬픔, 그리움, 분노, 죄책감 등의 감정을 담아내면서 읽는 이들의 논리보다는 감정과 정서에 호소한다. 구술기록과 같은 논픽션 장르는 무엇보다도 사실의 압도적인 힘에 의지해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문자 기록이 주는 단순 상상에 국한하지 않으면서 잠재적으로 거의 모든 이에게 공감과 연대의 정서를 개방하는 잠재력을 지닌다(곽은희, 2020, 63). 객관적 사고기록이 포착하지 못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사건의 연도, 희생자 수와 같은 데이터화된 기록과 변별된다(곽은희, 70). 참사의 리얼리티가 사람들의 마음에 제대로 와 닿도록 하고 타자의 고통에 눈 감으려 하는 정서를 뒤흔들어 우리를 유가족의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이끈다(서경식, 2010, 232-233; 곽은희, 70 재인용). 한 구술자는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있어서” 구술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한 인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고 밝힌다.⁵⁾ 참사 유가족에게 구술 증언은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들을 구술 증언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애도 행위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그 스스로 자식을 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416공동체’는 참사의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록 실천 행위를 이어나가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⁶⁾ 결국 기억저장소의 구술 증언록은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마음의 표시이자 세월

5) 예은엄마 박은희 구술, *그날을 말하다*, 4.16구술증언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10권, 17-18.

6) 본 논문에서 ‘416공동체’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했던 시민단체, 기록활동가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애도에 동참했던 시민 다중을 포괄해 지칭한다.

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행동이면서, 희생자에 대해 유가족이 지니는 애도의 정동을 기록화한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3) ‘아카이브 신체(archival body)’의 정동의 기록화: 기억교실

‘기억교실’은 4.16 기억저장소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기록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의 터’로서 기억교실은 사회적 재난 아카이브이자 국민적 위로와 기억의 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 27일에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되었다.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기억의 장소이다. 참사 후 이 공간은 2년간 단원고에 머물렀지만, 이후 총 세 번의 이전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현재 4.16 민주시민기록관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기억교실을 서성이다 보면 단원고 2학년 교실에 들어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모든 기록이 이전 그대로 꼼꼼하고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다. 기억저장소는 이전을 위해 단원고 기억교실의 기록물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그 기록으로 복원계획을 세우고 일일이 목록과 대조해 가면서 실제 공간을 복원했다. 기억교실 내부의 책걸상, 교탁 등을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씩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교실문, 창문틀, 몰딩 같은 고정기록물도 그대로 원래 장소에서 떼어내 온전히 재현하고 있다.

현재 기억교실 내부에는 2014년 4월 16일의 시간에 멈춰 버린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부터 10반과 교무실의 기록물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책상, 의자, 칠판, 게시판, TV, 사물함 등의 박물류와 게시물, 학사력, 달력과 같은 아날로그 기록물로 구성되어 공간과 기록의 물질성을 보존하고 재현하고 있다. 단순히 밖에서 관람하는 폐쇄된 공간을 탈피하여 방문객들이 이들 기록을 체험하며 희생자들의 흔적을 시각, 촉

각, 후각 등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실 내부를 개방하고 희생자 자리에 앉는 것까지도 허용한다(조민지·이은화·이영남, 2020, 227). 방문객들이 직접 기록물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기록물을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신체적 친밀감을 제공받기 때문에 ‘아카이브 신체’의 정동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기록학 영역에서 이렇듯 신체(body)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새로운 연구 경향이다. 러셀 러셀(Russell, 2018)은 “아카이브에서의 정동(Affect in the archive)”이라는 논문에서 이용자들이 기록관을 방문해서 실물기록을 대면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정동을 다루었다. 먼저 그는 기록관의 주요 이용자인 역사가들이 기록에서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을 때 느끼게 되는 전율과 로맨틱한 감정의 애착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가 오래 전 19세기에 쓰인 편지를 봉투에서 꺼냈을 때 담배 냄새가 났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 순간 편지를 쓴 사람과 그 공간에 함께 머무는 감정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식민지 시대의 기록을 읽다 보면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묘사하면서 러셀은 기록이 촉발하는 다양한 정동적 경험에 대해 서술한다. 그가 보기에 실물기록은 촉각을 가지고 있으며, 본능적이고 청각적이며 후각적인 정동을 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감각들은 기록이 디지털화되면 확실히 감소한다고 지적한다. 비록 디지털화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실물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실물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정동을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Russell, 2018).

이용자들이 실물기록과의 대면을 통해 경험하는 정동에 대한 러셀의 논의는 제이미 리(Jamie A. Lee)에 의해 한층 더 이론적으로 견고해진다. 리(Lee, 2016)는 기존의 기록관리가 보다 광범위한 역사와 지식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프레임을 통해 아카이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리는 아카이브를 정동이론에서 강조하는 신체에 빗

대어 ‘아카이브 신체(archival body)’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기억교실은 리가 말하는 일종의 대표적 아카이브 신체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아카이브 신체에 접근하는 것의 정동적인 본질을 탐색하면서, 리는 아카이브 신체를 직접 만지고 냄새 맡고 쓰다듬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정서적 자극을 유발하고 어떤 정동적·감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용자들이 감정을 느끼고 정동을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아카이브 신체’ 그 자체가 정동의 저장소임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인간 신체와 마찬가지로 기억교실과 같은 아카이브 신체는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으로 이용자들이 실물기록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아카이브 신체 사이의 관계 맺기가 가능하고 애도의 정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카이브 신체란 개념을 통한 정동 공간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기억교실”이 가지는 정동적 함의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훼손의 우려가 있지만, 기억저장소는 공간과 기록의 물질성이 방문객들의 정동적 경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416공동체의 실물기록을 체험하며 만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교실에 와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는 과정, 교실에 앉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꿈이나 좋아했던 것을 알아가는”(경빈엄마 전인숙, 2021, 24) 기억교실은, 위로와 기억의 장소로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정동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아카이브 신체’의 맥락에서 정동적 친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억교실은 방문객들에게 기록의 지적 경험만큼이나 정동적 체험 또한 가능하도록 의도된 기록공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억저장소의 ‘기억교실’은 아카이브 신체의 정동을 보존하는 공간기록으로 자리잡고, 방문객들이 아카이브 신체를 직접 만지고 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그에 내재한 정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기억저장소의 기

록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4)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아키비스트 사이의 정동: 공감

기억저장소는 시민과 참사 유가족이 지닌 애도의 정동을, 그리고 ‘아카이브 신체’에 깃든 기억교실의 정동을 보존하고 있다. 더불어 정동의 저장소로서 파악되는 기억저장소에는 참사 피해자와 아키비스트 사이에 맺어진 연대와 공감의 정동이 자리하고 있다.

기억저장소의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평가함에 있어 증거적, 정보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 못지않게 정서적, 감성적 가치에 기초한다. 기억저장소는 현재 수집정책을 정확하게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기관의 설립 취지나 ‘4.16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거의 모든 관련 기록물의 기증을 받고 있다. 참사 유가족이나 생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사 관련 기록을 기증하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416공동체’에 영구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을 식별하는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한다. 일부에서는 기억저장소의 이러한 포용성이 보존가치가 결여된 기록들조차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간주해 보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 다르게는, 기억저장소의 기록이 전문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에 비해 당사자성⁷⁾이 높아서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적·단편적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앤드류 플린(Flinn, 2011, 6)이 주장하듯이, 공동체 기록의 다양성과 독특성, 그리고 높은 당사자성은 전통의 기록관리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가치들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에 상당한 정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7) 기억저장소는 참사 유가족이 직접 실무진으로 일하고 있어 당사자성이 높은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기억저장소의 소장과 국장 모두 세월호 유가족 당사자들이 맡고 있다.

현재 기억저장소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소속 아키비스트들이 평가 결정에 정동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삭발도 마다하지 않았던 유가족들의 생생한 활동기록, 단식투쟁자의 ‘몸자보’ 기록, 유가족이 배를 타고 동거차도를 거점으로 세월호 인양현장을 감시한 기록들, 아이들이 한때 덮었고 참사 이후 유가족이 진도체육관에 내려갔을 때 바닥에 깔았던 이불들 등 기억저장소에는 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생산한 고통과 슬픔의 정동을 담은 기록들로 가득하다. 또한 아이들이 사고로 단지 불쌍하게 죽은 아이로만 기억되지 않고 이전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그리고 어떤 각자의 고유한 삶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꾸린 〈희생자를 기억하며〉⁸⁾ 컬렉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적 기록, 법적 재판기록과는 사뭇 다른 질감과 결을 드러낸다. 예컨대, 공적 기록으로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기록은 인사, 서무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기록, 위원회의 회의기록, 그리고 참사 관련 기록으로 해경, 해수부, 청와대에 대한 조사 및 수집기록이며 국회 국정조사, 검찰, 감사원 등에 의해 생산된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들 공적 기록은 정제된 객관적 기록으로 무엇이 사고를 참사로 몰았는지를 담당하게 추적한다는 점에서 참사 당사자들의 주관적 시선으로 정동을 담아낸 기록과 상당히 다르다. 카스웰(Caswell, 2014b, 313)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기록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 주류 아카이브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에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인식론 및 가치 지향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카스웰의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에서처럼, 기억저장소의 아키비스트는 참사 피해자들의 특수한 정동에 공감하면서 애도의 정동을 보존할 수 있는 기억저장소만의 독특한 기록 수집 및 컬렉션을 구축해내고 있다.

8) <http://www.416memory.org/collection/col1>

참사 피해자에 대한 공감의 정동은 기억저장소의 아키비스트로 하여금 기록평가자 또는 기록관리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생산하는 '기록자'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게끔 한다. 통상적으로 전문기록관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생산하지 않고 이미 생산된 기록을 정리하고 보존한다. 하지만 기억저장소의 아키비스트는 참사를 기록하는 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기록자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보인다. 아키비스트들은 단 원고에서 '기억교실'을 철거할 때 모든 과정을 꼼꼼히 영상기록으로 생산했고, 동거차도 감시초소 철수 시에도 이 모든 과정을 기록화해서 남겼다. 또한,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을 때 아키비스트들은 우여곡절 끝에 직접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서 내부를 촬영해서 관련 기록을 남겼다(이은화 인터뷰, 2022. 08. 31). 기억저장소 아키비스트가 보인 기록자로서의 정체성은 참사 피해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들에 대한 감정적 유대와 공감이 없었다면 획득하기 어려운 정체성이라 볼 수 있다.

기억저장소의 아키비스트는 그 자신이 참사 피해자의 당사자성을 똑같이 몸에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감정과 경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대와의 공감에 이르게 된다. 아키비스트는 기록활동을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삶에 관여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고, 아키비스트의 공감은 마침내 세월호 참사 기록화와 관련해서 그 스스로 당사자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된다. 참사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당사자성'을 가졌다면, 아키비스트는 이른바 '획득된 당사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⁹⁾ 즉 기록활동 과정에서 참사가 불러온

9) '획득된 당사자성'은 아키비스트의 당사자 기록 수집의 체험과 공감 가운데 성장한다. 가령, 기록저장소 아키비스트들이 근무 외 시간인 토요일에도 2년 가까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넘쳐나는 기록들을 정리하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 '기억과 약속의 길' 프로그램을 2년 넘게 운영하면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것이 획득된 당사자성이다. 또한, 2017년 세월호가 인양됐을 때 나온 아이들

고통을 목격하고 그 고통에 마음이 요동치면서 생기는 일종의 교감적인 당사자성을 가지게 된다(토모히사 외, 2021, 147-148).

4. 나오는 글

필자는 본 연구에서 오랜 기간 실증주의에 의해 구축된 기록학 이론과 기록관리 실무가 어떻게 재난의 트라우마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개인적 고통과 분노, 절망감 등 정동적 경험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 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정동과 기록 영역 사이의 고착된 인위적인 분리와 정동 기록의 비가시화에 도전하면서, 기록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동과 감정을 기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정동과 기록의 관계성을 아주 좁게 정의된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다 넓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재난과 애도 차원에서 더욱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동안 비판받아온 근대 아카이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적 시각으로서 정동이론을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4.16 기억저장소를 재난 아카이브이자 재난 시대의 ‘정동’을 보존해온 대표적인 아카이브로 보고 이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유품 중 하나로 기증받은 교복 재킷 한 벌을 복원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매달려 부탁하기도 하고, 뺄어 뒤범벅이 된 책 한 권을 간신히 복원해 주인의 흔적을 찾아 다니는 과정 속에서, 아키비스트는 그렇게 어렵사리 복원된 교복과 책 제목 앞에서 울컥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더욱이 복원한 책 제목이 '세월의 돌'이었다는 것을 보는 순간 너무 흠칫한 느낌과 함께 '이게 운명인가'라는 감정을 경험한 아키비스트는, 더 이상 그 자신이 외부자성에 기반한 관찰자가 아니며 자신이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416 정신이 없으면 기억저장소에서 아키비스트로서 공존할 수 없다"(이은화 인터뷰)는 아키비스트의 언명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기록하는 아키비스트에게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 분노, 절망감에 대한 공감의 정동적 접근이 기록 활동에 있어 요구되는 중요한 윤리 강령 중 하나임을 파악할 수 있다.

살렸다. 동시에 이 기억저장소의 아키비스트는 재난 시대의 다중의 정동을, 참사 피해자의 정동을, 그리고 ‘아카이브 신체’의 정동을 공감의 정동에 기초해서 아카이빙하고 있다는 점을 봤다. 즉 노란리본과 포스트잇, 참사 피해자의 구술증언록, 그리고 ‘기억교실’은 우리에게 단순히 뼈아픈 과거의 재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신체적 차원에서 공감과 애도의 정동을 유발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4.16 기억저장소는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재난 ‘정동’ 기록을 담지한 중요한 역사적 저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정동 개념을 서구 기록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록관리 영역에서 여전히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이펠(Cifor, 2016, 11-12)은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아직까지 객관성을 목표로 하는 지식생산의 근대성과 ‘과학’으로서의 기록관리의 관행이 존재하고, 둘째, 많은 기록학 이론가들이 아카이브 권력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키비스트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가치 중립성의 이상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지식 생산의 젠더화된 관념을 들고 있다. 즉 객관성, 이성 등은 남성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주관성, 열정, 욕망 등은 종종 여성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젠더화된 지식 생산의 차별적 시각이 아카이브 담론에서 정동의 수용을 더 어렵게 하고 주변화했다고 본다. 사이펠은 기록 영역에서 정동의 주변화는 결국 우리의 일상이 사랑, 고통, 즐거움, 희망 등 정동과 함께 한다는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결국 이는 기록학자와 아키비스트에게 보다 진지하게 기록이 정동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는지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기록 영역에서 정동적 가치의 수용이 기록학계의 전통적 이론 프레임을 넘어서서 인문사회 전반의 ‘정동적 전환’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주체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었다. 증거로서의 기록 그리고 정보로서의 기록이라는 전통적인 기록가치론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아카이브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동에 대한 담론은 재난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전통과 맥락에서 아키비스트 윤리와 활동가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공감’의 윤리 이외에도 정동이론에서 논의되는 ‘정서적 정의(emotional justice)’는 기록활동 과정에서 인권 유린에 대한 최초 목격자로서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록 실천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Cifor, 2016, 18-22). 참사 피해자들과의 정동적 관계는 아키비스트로 하여금 종종 깊은 감정적 울림을 가진 트라우마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아키비스트가 정서적 정의에 기반하여 자신의 윤리적 근거를 확장하도록 촉구하는 까닭이다.

결국, 정동의 기록화는 약자의 인권과 사회정의에 한층 다가서는 기록 실천의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제도 현실에서 미해결된 416 세월호 참사는 4.16 기억저장소의 정동 기록을 통해 더욱 생생히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동의 저장소를 통해 사회사적으로 뼈아픈 애도의 정동적 발화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한 불현듯 찾아들 것이다. 그것이 정동의 기록이 지닌 애도의 정치학이다.

〈참고문헌〉

- 곽은희 (2020). 재난의 기록, 기억을 통한 연대, 인문연구 92, 59-94.
 경빈엄마 전인숙 (2021). 단원고 4.16기억교실 원형복원, 기억의 연대 vol. 5, 4.16 기억저장소.
 김명훈 (2010).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73-112.

- 김미향 (2019. 11. 24.). 재난 이후의 재난, '슬픔의 구조자들' 손잡은 이유.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74.html
- 김성일 (2016). 86호를 발간하며, 문화과학 86, 4-17.
- 박미선 (2015). 로렌 벨렌트 :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여성이론 33, 도서출판여이연, 99-125.
- 박현선 (2016). 정동의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86, 59-81.
- 박현선 (2020). 재난, 아카이브, 이미지: 재난 기억의 문화적 실천, 한국극예술연구 68, 231-257.
- 브라이언 마수미 (2011). 가상계, 갈무리.
- 서경식 (2010).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영희.
- 설문원 · 김영 (2016).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기록학연구 48, 209~251
- 유해정 (2018). 정치적 애도를 통한 삶의 재건: 세월호 참사의 시민 경험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8(2), 181-220.
- 이경래 · 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77.
- 이종찬 (2016). 정동, 마음의 움직임, 문화과학 86, 294-309.
- 정원옥 (2014).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애도의 정치, 문화과학 79, 48-66.
- 정원옥 (2016). 재난 시대, 청년세대의 문화정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서 포스트잇 추모 행동까지, 문화과학 88, 157-175.
- 정원옥 (2017). 재난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재난참사기억프로젝트팀 지음,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재난을 묻다, 서해문집, 60-63.
- 정정훈 (2014). 재난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 문화과학 79, 4-13.
- 정정훈 (2017). 이데올로기와 어펙트, 혹은 ‘인간학적 조건’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루이 알튀세르와 브라이언 마수미 사이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90, 402-429.
- 정정훈 (2019). ‘정동’이라는 전장: 어펙트 이론의 계보와 쟁점들, http://seogyo.net/lecture?board_name=lecture&mode=view&search_field=fn_title&order_by=fn_user_name&order_type=asc&board_page=1&list_type=list&board_pid=164
- 정혜진 (2014. 4. 27.). 18세 생일 지나 주민증 생긴다고 좋아했는데..., 서울경제.
- 조민지 · 이은화 · 이영남 (2020).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기록학연구 66, 267-316.
- 주디스 버틀러 (2008).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경성대출판부.

-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재난참사기억프로젝트팀 (2017).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재난을 묻다, 서해문집.
- 4.16 기억저장소 (2019). 그날을 말하다: 예은 엄마 박은희, 4.16구술증언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10권, 한울.
- 4.16 기억저장소 (2019). 그날을 말하다: 연화 아빠 이종해, 4.16구술증언록 단원고 2학년 1반 제6권, 한울.
- Ahmed, S (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Edinburgh.
- Athanasiou, Athena, Hantzaroula, Pothiti and Yannakopoulous, Kostas (2008). *Toward a New Epistemology: The 'Affective Turn'*, Historein.
- Caswell, Michelle (2014a). *Archiving the unspeakable: silence, memory and the photographic record in Cambodia*,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 Caswell, M (2014b). *Towards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 Sci 14(3-4), 307-322.
- Caswell, M, Cifor M (2016). *From human rights to feminist ethics: Radical empathy in the archives*, Archivaria 81, 23-43.
- Cifor, Marika (2015). *Presence, absence, and Victoria's hair: affect and embodiment in trans archives*, TSQ: Transgender Stud Q, 2,2, 645-649.
- Cifor, Marika (2016). *Affecting relations: introducing affect theory to archival discourse*, Arch Sci 16, 7-31.
- Clough PT, Halley J (eds) (2007). *The affective turn*,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Cvetkovich, Ann (2003). *An archive of feeling: trauma, sexuality and lesbian public culture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Dunbar, AW (2006). *Introducing critical race theory to archival discourse: getting the conversation started*, Arch Sci 6: 109-129.
- Flinn, A (2011). *Archival activism: independent and community-led archives, radical public history and the heritage professions*, Inter Actions 7(2), 1-22.
- Gilliland, Anne J. · Michelle Caswell (2016). *Records and their imaginaries: imagining the impossible, making possible the imagined*, Arch Sci, 16, 53-75.
- Gilliland, Anne (2014). *Moving past: probing the agency and affect of recordkeeping in individual and community lives in post-conflict Croatia*, Arch Sci, 14, 249-274.
- Halilovich, Hariz (2016). *Re-imagining and re-imagining the past after 'memoricide': intimate archives as inscribed memories of the missing*, Arch Sci 16, 77-92.

- Harris, V (2001). Seeing (in) blindness: South Africa, archives and passion for justice. http://scnc.ukzn.ac.za/doc/LibArchMus/Arch/Harris_V_Freedom_of_Information_in_SA_Archives_for_justice.pdf.
- Harris, V (2002).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 Sci* 2(1-2), 63-86.
- Kim, Sara (2013). Landscape of personal digital archiving activities and research, *Personal Archiving Preserving Our Digital Heritage*, edited by Donald T. Hawkins, Information Today, Inc. Medford, New Jersey, 153-186.
- Lee, Jamie A. (2016). Be/longing in the archival body: eros and the “Endearing” value of material lives, *Arch Sci* 16, 33-51.
- Russell, Lynette (2018). “Affect in the archive: trauma, grief, delight and texts. Some personal reflections”, *Archives And Manuscripts*, 46(2), 200-207.
- Shouse, E (2005). Feeling, emotion, affect. *M/C J*, 8(6). <http://journal.media-culture.org.au/0512/03-shouse.php>.
- Sedgwick, EK (2003).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Wilson, Jacqueline · Frank Golding (2016), Latent scrutiny: personal archives as perpetual mementos of the official gaze, *Arch Sci* 16, 93-109.

〈인터뷰〉

- 이은화(前 4.16기억저장소 기록관리팀장, 現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운영실 팀장) 인터뷰, 4.16기억저장소, 2022. 08. 31.

